



통권 147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4. 1. 8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토대를!!



민족의 영산, 장엄한 백두산 신이여, '천지' 위로 새해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 나갑시다.

• 목 • 차 •

새해를 여는 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 2 / 이 달의시 유병문 • 5 / 조시 진관 • 6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이구영이문학회 대표 • 8 /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임미영 송두율대책위 • 10 / 0턴 회원 하재광 • 12 / 감옥에서 온 편지 강성철 • 14 /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 민준홍 • 15 / 감옥에서 보내온 새해인사 • 16 / 연재-다가오는 통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 20 / 역사강좌 한수정 회원 • 24 / 회원생년모임 보고 • 25 / 회원마당 모성룡 운영위원 • 28 / 시사만화 • 29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0 / 재정보고 • 39 / 화비납부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874-4063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naver.com

민가협: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정의와 평화실현을 위한 희망 새해로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양심수 석방과 후원회사업에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성원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망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마다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했듯이 2003년을 맞을 때는 작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자주통일에 대한, 그리고 인권개선과 사회진보에 대한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거대 수구·냉전집단과의 표대결에서 개혁을 표방한 세력이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패권주의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며 살인 미군을 처벌하고 소파를 전면 개정하여 뒤틀린 주권국가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한 지 바로 1년이 되던 날 우리는 또다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파병반대 광화문 인간띠잇기 대회를 열어야만 했고 희망새해를 다짐해야할 송년의 밤행사에서는 ‘파병결정 노무현정부규탄, 파병동의안 국회통과저지, 미국의 이라크점령반대, 이라크파병반대 송년결의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여중생을 죽인 살인미군은 무죄평결을 받고 도망쳤고, 부시의 공식사과도 소파 전면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군사패권주의 미국은 우리의 조국 반도에서 끊임없는 전쟁책동을 펴오면서 주한미군전력 증강계획과 선제공격을 위한 미군부대 재배치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계획을 위한 새 땅과 비용까지 우리정부가 부담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합법정부를 뒤엎으며 피로 얼룩진 살육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은 마침내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

기 생산·은닉이란 거짓정보를 조작하여 유엔의 동의도 없이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석유패권과 중동지역 장악, 더 나아가 군사적 세계패권을 노린 이 더러운 침략전쟁을 온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반대했습니다.

잔인한 살육전쟁에 이어 부당한 점령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라크 민중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미군은 전쟁기간에 있었던 수보다 더 많이 이라크의 저항 세력에게 죽음을 당했고 잔인한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탈영 미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신이 퍼부은 핵우라늄탄에 스스로가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범죄자 미국은 유엔을 동원하고 공갈협박을 하여 이른바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랜 우방국들까지 미국을 외면하고 있는 터에 지난해 이맘 때 그렇게도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참여정부는 동맹국이니, 국익이니 하면서 전투병을 포함한 3000명의 혼성부대를 추가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화문 인간띠잇기 대회는 이같은 부당한 결정을 철회시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위헌 행위를 받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수구냉전집단들입니다. 우리는 효순이·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자주 평화 촛불정신으로, 이 땅에서 전쟁책동을 물리치는 결의로, 온 인류의 정의 평화를 지키는 양심으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이미 파병된 서희부대, 제마부대를 즉각 철수시키는 데 한 마음으로 땀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 머물지 않을 것임도 분명해보입니다. 특히 부시정권 출범뒤 조국반도에 대한 전쟁책동은 저들이 전쟁과 살육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수준입

니다. 지금은 이라크 침략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언제 그 악의 본질이 드러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대북강경 정책은 변함이 없었고 베이징6자회담에서도 일방적인 대북압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2차회담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북에 대한 완벽한 핵포기만을 주장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참여정부는 민족적입장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일공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중유공급중단에 이어 경수로건설마저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110억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세우고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는 첨단살인무기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군사적 압박말고도 이어진 경제봉쇄와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수출을 막는다는 구실로 해상봉쇄훈련까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이른바 북핵문제를 빌미로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정책마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공과 동해선과 경부선등을 잇는 사업을 늦춰야한다고 내정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반도에서의 전쟁 책동과 국제사회에서의 정의와 평화를 깨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수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일본 집권자민당은 만경봉호 뿐만아니라 모든 이북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며 올해초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대북경제제재법인 대북무역과 송금을 중지시키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분명히 이북을 겨냥한 무장괴한이나 피선박이 출현할 때 경찰이나 해상보안청대신 자위대를 출동시키고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안전보장회 산하기구인 사태대처전문위

원회에서 검토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여 해외에서 무력행사와 전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헌법을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전시대비법인 유사법제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위대의 이라크파병이 갖는 의미가 있듯이 점점 군사대국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고이즈미총리의 신사참배는 바로 일본의 군사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전형적인 행위이며 최근 잇단 재일동포들에 대한 적대행위 또한 일본을 다시 경계해야할 상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그러나 이같은 미일의 제국주의 군사패권주의에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나다.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위해서는 분단의 벽을 넘어 이념과 정견 체제 제도를 넘어 민족공동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민족공조를 해야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 적십자회담등 당국자회담과 함께 민간통일운동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평양을 비롯한 이북 모든지역에 대한 일반관광이 진행되었고 정주영체육관개관식에는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육로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북측에서도 부산아시안게임,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제주평화축전에 대규모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와 한 핏줄임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8.15민족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이처럼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남북공조, 민족공조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청되고 있으며 그렇게 실천해야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믿는 도

끼에 발등찍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찍으러’는 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떠났던 대통령은 미국땅에 내려앉기도 전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추가조치’에 동의했고 국가보안법개폐약속,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정치수배해제 약속은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11기 한총련마저 이적단체로 임의 규정하고 체포와 수배조치했으며 통일애국인사 구속기소와 여중생범대위 일꾼들과 스트라이커부대 반전평화시위 애국학생들을 구속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도와 집시법 개악 등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빈곤화등 민중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족농업을 파탄낸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생계형노점상과 재개발지역에서의 무차별 강제철거로 민중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칸쿤’에서의 이경해열사자결 한진중공업의 김주익열사, 세월테크노조의 이해남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 이용석 두산중공업노조원 배달호열사 등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제도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수배당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1월 4일 현재 양심수 332명이 구속되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69명, 노동관련법으로 17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회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 고유한 임무말고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에 맞서고, 미국의 부당한 전쟁책동에 맞서 정의·평화·인권 보장에 앞장서 싸워 오셨습니다. 범민련, 한총련, 한청 이적규정철회,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토요캠페인, 정치수배자모임과 그 가족들

과의 연대·연합을 했고 무엇보다 간혀 있는 양심수들의 뜻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지를 다지며 어려운 경제적 조건하에서도 큰 성원을 하시어 영치금 보내기, 출소선생님지원,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마련에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2일 신념의 고향으로 가셨던 김종호 선생님의 운명소식을 들어야 했고 2차 비전향장기수 송환 희망자 가운데 김태수, 김정선, 장광명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 김열경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2003년안에 2차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미국의 전쟁책동 때문에 남북 사이가 경직되어 마땅히 고향과 가족을 찾아가야 할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이제 양심수후원회 활동 1년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회원산행모임, 여름수련회, 역사기행, 송년모임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양심수후원회를 빛내주셨던 편집위원, 시사모임, 홈페이지모임, 회원사업소모임 등 너무 애쓰셨습니다. 어찌 보면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도 꼭 가야할 곳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남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더 큰 희망과 승리를 위해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2004년 새해 아침.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현 

마르지 않는 한줄기 푸른 새벽강이 우리 가슴에 흐른다 - 錦江에서

유병문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수많은 날들을 달려왔건만
아직도 이르지 못했냐고
타박하는 소리 들린다

바다가 목전인데
걸음은 왜 그리 더디기만 한 거냐고
재촉하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처음보다 맑지 못하고 물만 흐려놓았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바다,
길은 애초부터 가깝지 않았다
다만 여울목처럼 좁고 마음 급한 이들만
이르지 못함을 따졌을 뿐

더디다고 지청구만 늘어놓으며
더딘 이유는 묻지 않았던 때,
사람들은 몰랐다
그만큼 바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함께 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인 것을

다시 우리는
첫 꿈을 생각한다
혼자 맑기보다 비록 더딜지라도,
흙탕물과 어울리며
서로 보듬어 깊어지고 넓어지는 강물이 되는 꿈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저 푸른 새벽강처럼 흐 · 른 · 다
역사의 강물 속에서
제 이름 갖지 못한 한방울 물이 될지라도
소리없이,
기꺼이,
...

농민 운동가 고 권종대 선생 민족 영전에

진관 시인

농민 운동가 고 권종대 선생이시여!
민족의 위대한 선생이시여!
어이하여 우리가 원하는 농민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민족이 그렇게 원하던 하나 된 조국을 이루지 못하고
이 나라 산천 그 어디에도 선생의 혼이 남기지 않는 땅 없 것만
아직도 양키의 점령으로 칠 흙 같이 어두운 분단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생은 떠넘기고
겨울 나비처럼 자유로이 날아가 버리시는 가요

우리는 7 천만 겨레가 하나의 조선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군사 정부에 의하여 수백의 민중들이 죽음으로 갈 적에도
오로지 하나 조국이 하나 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 된 조국이라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작은 몸집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한 태산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땅에 농민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1985년 민주통일 민중운동 연합과 1987년 6월 민중 항쟁 승리와
1990년 전국 민족민주운동 연합의 깃발 아래 창립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몸으로
권종대 선생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한 몸 이셨습니다

우리는 선생을 이 국토 위에서
조국이 하나 되는 그 날 까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결사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나 가셨습니다

선생이 가는 길이 아무리 좋은 곳 일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의 나라 보다는 못하리
그러니 가시다가 부디 우리를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하여 그 날에 오면 우리 곁에서 언제나 잘 부르던
조선은 하나다라는 노래를 어깨 걸고 힘차게 부르자구나

우리가 권총대 농민 운동가를 처음 만났을 적에
양키의 발톱이 이 국토를 짓이기고 있는 아픔과
군사 정부를 끝장내고 민주 정부를 외치고 있던 시대
진흙속에서 피는 참으로 아름다운
연꽃 처럼 우리는 만났다는 추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주인으로 조국이 하나 되는 세상
노동자 농민 빈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여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통일 세상을 건설하자고
온 몸으로 나선 우리의 농민 운동가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조국이 하나 되지 않는 한
선생을 우리 곁에서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니
농민운동가 통일운동가 고 권총대 선생이여
살아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원하는 농민 세상을 이루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 함께 살자 우리조국 하나된 조국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함께 살자
잘 가시라 농민 운동가여!
잘 가시라 통일운동가여!



일생을 운동에 전념하셨고, 전국연합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셨던 권총대 의장님께서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시다 지난 1월 4일 67세의 나이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기리는 시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구영 이문학회 대표

[편집자주] 이번 호 [출소장기수를 찾아서]는 장기수 선생님과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 한번 쉽니다. 대신 출소 장기수 선생님이신 이구영 선생님의 이남과 이북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있는글을 실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이구영 선생님은 1920년 충북 제천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학공부를 하시다가 1938년 뒤늦게 영창 학교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셨고, 1942년에는 황한의학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일제 말기, 1년의 수형생활을 겪으셨고 해방공간에서도 동양의학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사회진보운동을 하시다가 1950년, 북에서 활동하셨고, 1958년 자주·통일운동을 위해 남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3년의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1980년, 가석방으로 출소, 1984년, '이문학회'를 만들고 한문학, 역사, 서예 등의 길에서 많은 후학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내게는 북쪽에 책임져야 할 세 사람의 가족이 있음을 고백한다.

1958년 헤어질 당시 아내와 세 살 난 아들. 갓 태어난 딸아이 뿐이었지만 지금은 가족이 더 불어났으리라 짐작된다. 이제는 일흔 넘은 노인이 되었을 아내는 그때 스물여덟의 앳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내 모습에서도 40여년이란 세월의 흔적을 느끼는데 긴 시간을 떨어져 산 북쪽 가족들에게서 그 시절 그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내는 애잔한 여인으로 자식은 걸음마 하던 아이와 강보에 싸였던 핏덩이로 내 가슴에 남아 평생 나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다. 그들은 내가 보호했어야 할 내 피붙이였다.

애초에 결혼을 망설이던 내게 아내는 남북이 통일되면 기꺼이 물러나겠노라 몇 번이나 말했다. 혼인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쪽 가족을 그대로 호적에 기재한 채로 살았다. 남쪽의 가족에겐 아무 의미가 없으련만 그걸 고집했던 나는 그녀에게 얼마나 몰염치,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자기주장이 뚜렷한 신여성으로

서 처녀의 몸으로 나와 결혼한 아내는 속상한 마음을 한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인가의 일이다. 빨래를 갔던 아내가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내 시선을 피하기에 살피보니 눈가가 울음으로 부어 있었다. 침착하고 감정 절제를 잘 하던 평소 모습과 달라서 놀라 이유를 물었다. 빨래를 하다가 자신의 처지에 눈물이 나서 내 와이셔츠가 떠 내려가는 것을 몰랐다고, 그래서 도랑 하류까지 더듬어 내려가 찾아오느라 늦었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그 사람을 호적에 올렸다. 내 자신의 미움함에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쪽 옥수수가 어찌나 촘촘하게 알이 박혀 종던지 고향 가족이 생각난다고 무심히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내는 해마다 실한 것을 골라서 통일되면 고향에다 심으라며 매달아 놓았다. 술하게 많은 제삿날에 말없이 앉아있는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로 같이 밤을 밝혀주었다.

지금 남쪽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가장으로서 소홀했던 기간 동안의 공백을 채울 길이 없다. 나로 인해 받아야 했던 고초와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비의 존재를 부정도 인정도 할 수 없어서 겪었을 혼란스러움. 그것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나가는 아픔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나는 또 하나의 멍에를 진 셈이다.

자신의 의견은 뒤로 하고 말없이 자리를 지켜준 지금의 아내를 볼 때마다 염치없고 안쓰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삼십 년을 비웠다 돌아온 집안에서 아내와 두 딸은 변함없이 내 심신의 안식처 역할을 해주었다. 진정 내가 이 평화와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면 마음이 저러온다. 철없이 만나 예를 올리고 산 십대의 나. 이십을 넘기면서 줄곧 집밖으로만 돌던 나를 부부란 인연만으로 평생을 음지에서 살아온 사람이 나의 아내이다. 이제 병약하고 판단력마저 흐려졌지만 나에 대한 마음씀은 여전히 소홀함이 없다.

삼십 년의 시간이 길러준 두 딸들이 제각기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 내 앞에 섰을 때 그 아득함이란. 그저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만남을 잊을 수 없다. 함께 생활하면서 문득 놀라는 것은 그들 언행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피와 살로 이어진 내 생명의 이어짐, 그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이다. 그 소중함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로서 망기해 버린 많은 날들이 딸들에게 얼마나 비정하고 야속했을까. 가끔 섭섭함을 느낄 때조차도 그게 바로 가족끼리 꺾어내는 사람 살이라는 깨달음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에 있는 또 다른 아내와 두 아이들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헤어지던 날의 모습이 너무도 뚜렷하게 떠오른다. 아내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푸석한 얼굴로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말들을 그저 눈물로 대신했다. 눈물도 또 다른 언어이니 나는 분명 이별의식을 치루고 헤어진 셈이다. 막 말을 배우던 세살 바깥 아들의 목소리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갓 난 딸애의 잠든 모습과 아울러 세 식구의 모습은 정지된 화면으로 사십 년이 넘게 생생히 살아 있다. 낯덩이로 가슴에 추를 매달면 이토록 무거울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그 날의 기억을 붙잡고 늘어질 때가 많다. 갑갑하고 막막한 마음이 가슴을 누른다.

기막히다는 말 말고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그저 망연할 뿐이다. 처음 감옥에서 나와 고향집에서 맞은 첫날 밤 늙은 아내에게 이복가족 얘기를 했다. 속죄랍시고 한 고백이었다. 그때 아내는 천만다행이라는 듯 복

쪽에 아들이 있음을 오히려 반기었다. 늘 나에 대한 염려만 앞세우고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속없는 사람이다. 아내의 한결같은 마음이 지금껏 나를 지켜왔음을 알고 있다.

이쪽 저쪽 가족들에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로 말미암은 그들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명분 때문에 그들은 평생 고통을 지고 살아야 했다. 지아비와 아비였음에도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삶을 마련해주지 못했다. 어떠한 다른 말로도 변명할 수 없어서 함구하고 사는 못한 가장이 되고 말았다. 인간으로서 가족들한테는 차마 못할 일 많이 한 내 인생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이산가족이라는 단어는 오십 년 동안 울부짖고 목메는 절규로 우리 가슴에 남았다.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 본 통곡으로 한을 풀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 아닌 사람들에게겐 극적 감동마저 시들해져 덤덤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웅이진 그리움에서 비롯된 고통의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연전에 임진각에서 추석날 자살했던 이산가족 노인의 죽음에 대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싶었다.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관광객은 가고 또 간다. 변함없는 산천이라도 보려고 가려는가. 목 늘어 기다리는 내 핏줄, 가족은 언제까지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 주려는가. 나답지 않은 초조함을 근래에 느낀다. 평양응원단들의 모습을 보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넘어서 내 손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인력이 미치지 않을 때 시간이 해결한다고 한다. 때를 기다려야지 그러나 그때는 언제이며 나 또한 이 세상에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 차라리 생각 말자 하면서도 다시 그 끝에 내가 서 있다. ~~하~~

정정희여사님과 의 동행기

임미영 송두울대책위, 양심수후원회 회원

인덕원에서 내려 눈 덮인 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서울 구치소 정문 앞에서 내려섰을 때 차들과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하고 세상은 하얗게 덮힌 눈 때문에 눈부셨으나 마음이 무거웠다. 약간 일찍 당도해서 기다리는 중 접수 창구 앞에 아들 린과 함께 있는 정정희님의 모습을 찾아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티브이에서 인천공항 입국대에 들어서면서 38년만의 귀국에 기쁨과 회한과 낯설음을 담은 얼굴로 환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줍게 손을 흔들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다. 조금 늦게 나타나신 권오현회장님과 함께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정정희님은 여독을 풀 겨를조차 없었던 그간의 일들로 다소 수척하고 어두운 모습이였다. 그러나 권오현 회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데 귀를 기울이며 마침 박홍 신부가 송교수님 면회 후 동아 일보에 교수님이 자신을 “사상적 탈북자”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여주었다. 절대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보수 언론들의 부도덕성에 재차 분노하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시간이 되어 면회실로 갔다.

창살안쪽에 계신 교수님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맑고 강했으며 목소리는 낮고 겸손했다. 짧은 시간동안 박홍신부와의 면담 기사와 건강 상태와 변호인 입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심문 등에 대해 정정희님, 아들 린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은 자신의 힘든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색하지 않자 정정희님은 그런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는지라 무엇이든 부당한 것에 대해 구치소 쪽에 정당하게 요구 할 것을 몇 번이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미 교수님은 검찰 심문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이 되고 마는지 알고 있는 터여서 부인을 위로하려 그러겠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힘내라는 격려를 한 후 구치소에서 나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매번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게 여겼더니 손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계속 바깥 음식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 린이 한국 음식을 잘 먹느냐고 물어보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에서도 자주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기 때문에 한국음식이 낯설지 않다고 했다. 강남의 좁은 오피스텔에서 당분간 생활하고 있는 정정희님에게 불편하시죠 라고 물었지만 다만 웃음을 지어보였다.

서울이 어떻습니까 라는 물음에 정정희님은 다시 웃음을 보이며 아주 복잡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마치 가위눌리는 꿈 같은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정정희님은 교수님과 함께 독일에서 우여곡절 끝에 근 40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설레임의 첫 매듭을 풀기도 전에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사업에 학자적 양심을 건 남편을 고국의 거울 감옥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것이 부모의 나라에 생전 처음 발을 내디딘 아들들에게 안겨준 첫 선물이 되고 만 셈이다. 정정희님은 분노하고 좌절하여 뜯눈으로 밤들을 지새웠다. 그러나 정정희님은 곧 그것이 자신에게 안겨진, 견디기 어려우나 능히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송두울교수님의 반려자이며 분단 조국의 비극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 지식인의 동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역할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정정희님은 망설임 없이 공안당국과 수구 언론과 극우주의자들이 규정한 간첩(?) 송두울이 서술 피린 7,80년대의 유신과 독재정권시절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으며 독일의 통일을 현장에서

체험한 학자로서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자주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일에 열정적이었던가를, 그리고 그것은 남편에게도 자신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법에 의해 남편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국에서는 물론 일시 독일로 돌아갔을 때에 짧은 시간이나마 송교수 석방 유럽대책위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식사회에 한국에서의 상황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방법의 후원을 요청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후 평화 자주 통일을 위한 화해 협력적 관계에 있는 북한을 아직도 철저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안 당국은 남이나 북이나 라는 몰상식한 양자택일의 처지로 송교수님을 몰아부쳤고 수구보수 언론들은 왜곡을 일삼아서 무모한 여론 재판 속에 송교수님을 던져 넣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정희님에게 더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송교수님 구속과 케를 같이하는, 범민련의 민 경우님 구속과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이 나 노동자 농민의 생존을 건 집회에서의 공권력의 폭력적 행사.....따위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아 조국은 아직 완전한 자주와 민주와 평화가 시대가 오지 않았음을 그래서 남편 송두율이 그 현실이 요구하는 절박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정희님은 많은 인권단체와 진보그룹들과 연대하고 민가협 500회 집회에서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편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안당국에 촉구하며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평등 평화와 나아가서는 통일 정신을 반하는 반통일 수구 세력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장치임

을 알리는데 목소리를 보탰다.

매주 진행되는 공판은 다섯 차례를 넘겼고 재판정에 나올 때 수갑을 찬 남편의 모습에서 그 부당함을 하소연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비열하고 교묘한 사상전향공작에 흔들리지 않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힘든 중에도 정정희님은 남편의 학자적 양심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은 귀국과 동시에 시차를 적응하기도 전에 4차례에 걸친 국정원 조사와 10번에 가까운 검찰에서의 조사에 이어 곧바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에 가입 및 특수 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에 의해 구속되기까지 숨이 턱 막힐 듯이 내몰린 교수님의 건강 상태는 정정희님을 안타깝게 했으며 그때마다 독일과 비교한 우리 나라 구치소에서의 의료제도의 낙후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서명운동과 온라인 시위 또는 격려 편지나 재판정의 방청, 석방대책위가 중심이 된 지속적인 노력에 정정희님은 그들의 역량에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고 있다. 또한 정정희님은 여론이 초기의 부정적 반응에서 재판이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 고무되어 있다.

누군가가 재판정을 빠져나가는 교수님을 향하여 소리친다. 교수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그것은 모든 양심수들을 지지하는 함성으로 들린다. “양심수여러분, 사랑해요! 힘내세요”라고!!

이 글은 고단하고 바쁜 정정희님의 일정 때문에 정식 인터뷰를 하지 않고 여러 차례의 동행에서 보고들은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정희님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양심수후원회 간사 김혜정, 그는 굴하지 않는다

하재광 양심수후원회 편집위원회 기획위원

요즘 겨울이라는 친구는 사람들이 약을 잘못 써도 한 참 잘못 써서 그런지 맛이 영 신통치 않다. 특기인 맹렬한 바람 일으키기도 한 물 간 짓 같고, 가끔은 하양낙원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던 그 신비한 능력도 쉽게 볼 수 없으니...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일까. 알쏭달쏭한 세상이다. 병든 겨울이, 여름같은 겨울이 그저 두려울 뿐이다.

훈훈한 양심 공동체.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간첩이든 비간첩이든(남쪽나라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간첩과 비간첩으로. 참 이상한 나라다.) 양심수후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혹은 있다면 이 글을 읽기 직전까지 역사와 사람들에게 도저히 미안함을 감출 수 없어 참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1월호 소식지를 처음 접하는 ‘수괴’라는 별칭을 가진 이들과 그들의 ‘똥마니’라는 애칭이 있는 몇몇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괴’나 ‘똥마니’들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후원회원 중에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렇다면 이야기의 향방은 정해진 셈이다.

양심수후원회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몇명의 활동회원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대부분 모를 일이다. 하물며 법적으로 과잉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지성과 미모’를 자랑하는 한 여성이 있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야 보는 이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김·혜·정. 양심수 후원회 간사다.

주로 내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특기적성과 영어 교육을 받는 4학년 아들을 둔 ‘여느 아낙네처럼 보이는 이’다.

그 이를 만난 곳은 담배연기와 낙오된 고함소리가 교묘히 블루스를 추는 어두운 땅 속 맥주방.

“아이와는 주로 어떻게 놀아주죠?”



“바둑을 두지요.”

장난스레 되묻는다. 우리들 모두의 ‘어머니’에 대한 익숙한 편견을 담아서.

“‘오목’이겠지요?”

‘바둑’이라고 그는 거들 답한다.

친구같은 남편도 있다. 그런데 그는 아들과 둘이서만 산다. 요즘 너도나도 다 하는 이혼을 했냐구? 혹은 사별을? 아니면... 생이별이라고 해야 하나?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과 잠시의 이별을 일러 그냥 ‘인연’이라고 해 두자. 그렇다고 ‘이연(불가사의한, 현생에서는 인연을 맺을 수 없는 관계)’까지는 아니다. 엄연히 그들,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공간을 조금 초월했을 뿐이다. 여기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궁금해 할테니까.

국가보안법 7조(고무, 찬양 등)와 8조(회합, 통신) 위반. 12월 1일 연행구속. 약 10년 전처럼 국가는 남편

을 다시 불러 왔다.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그가 바로 남편이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또 쓸 판이다.

아내는 남편과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남편은 자신의 말에 정성스레 귀 기울여 주는 카운슬러 같다고 한다. 13년을 부부는 친구처럼 살아왔다. 잠시 떨어져 있을 뿐.

“10년 전에 비해서 느낌은 어떤가요?”

“그때보단 여유가 있죠. 6·15 공동선언 시대잖아요.”

겨울은 겨울답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아름답다. 이 시대는 말 그대로 ‘6·15 공동선언 시대’다워야 최소한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 해묵은, 하릴없이 늙은 ‘국가보안법’도 뛰어 넘지 못하는 공동선언은 미완성이다. 적어도 김혜정, 이 사람의 현재선.

“대학원 입학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떨어졌어요.”

아니 이런! 대학에서의 전공은 사학이었지만,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니 그 의지는 분명 남다른 것이다.

[편집자주] 현재 김혜정씨는 양심수후원회[사모]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민경우통일연대사무처장의 구속은 김혜정님이 간사로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혜정님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을 함께 실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차한잔, 재미있는 책한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다면 무얼 더 바라겠는가. 나의 일상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저녁이면 세식구가 모여 적당한 시간을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쓰면서 하루일을 얘기하고 수다떨고 그러면서 하루해가 저물곤 했다. 그러던 중 황망하게도 남편이 구속되었다.

이전의 삶의 궤도에서 내려와 요즘은 다양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몸도 바쁘고 머릿속도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 다시 치하게 되다니....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었다. 남편의 부재는 아주 낯설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안에 아이와 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다. 마음 속에 각자 남편과 아빠의 자리를 남겨두고 현실 속에 다시 자리잡기 시작했다.

남편의 구속 이후 간첩혐의로 기소될거라는걸 예상했었다. 전에도 한번 당한 일이라 그리 놀라지도 않았고 사실 내용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

검찰측의 주장은 공동사무국에 있는 박용사무총장이 조총련계이고 이북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과의 연락이 회합통신, 기밀누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무슨 거창한 내용이 있는것도 아니고 조총련은 물론 이북의 고위급인 사들도 오고가는 현실에 비해 억지스럽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모습에 황당함마저 느낀다.

이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검찰조사는 30일을 꼭 채우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살기 힘든세상에 영광이라고나 해야할까. 무슨 조사할게 그리 많다고.

‘간첩’이 단어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세대에 따라 여러 가지 단상들이 있을것이다. ‘이남에서의 간첩행위를 했다함은 북을 이롭게하고 남을 해쳤다?’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질 것인데 남과 북의 자주교류를 주선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남편이 어느 일방의 이해만을 위해 노력했다고? 국가보안법의 편협한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얘기로 진행되는.

최근에 본 영화 제목. <400번의 구타>,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같은 모르지만 분명 임상심리학과 연관됐을 것이다. ‘400번의 구타’라?

“어른들과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무책임으로 인해 한 소년이 망가져가는 어이없는 과정을 그린 영화죠.”

60년대 프랑스 영화라 하니 우리는 여전히 60년대 프랑스의 뒷골목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안해하지는 말자, 영혼이 잠식당할 테니까.

방배동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평범해 보이는 아/썸/마’.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 그저 안주만 하는 나약한 여인은 결코 아니다.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결코 굴복하는 것은 아닌, 우리 삶에 내재한 굴종의 경계에서 ‘내 삶의 주인이고자 하는 그 무엇’이 고자 한다. 운동의 경계선을 뛰어 넘고 싶어하는 열정, 그 자체이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기상이변이 없으면 좋겠다.

저 건너의 더러운 욕망이 사그러들지 않는 한 기상이변도 멈추지 않겠지.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한다. 욕망의 영토를 줄이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춤 없이 투쟁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고 믿는 공간감찰이 있다면 그는 분명 편견증환자일 것이다.

지금은 6·15 시대.

남과 북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단체를 불문하고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있다. 남편이 한 일 중 공소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사무국과의 회합통신내용은 대부분 남과 북의 교류에 관련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체제하에서 남편을 간첩으로 기소하는 공간감찰은 그 잣대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아마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검찰 앞에 줄을 서서 조사를 대기해야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는 최소한의 통일논의조차도 할 수 없다. 현실에서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팩스와 전화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고있다. 그래서 이미 사문화된 법임을 사회적으로 공유해가고 있던 시점에서 공간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어쩌면 공간들은 모든 교류들을 다 막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세상은 통일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데 그 바퀴를 멈추고 싶어 탄지를 건 다한들 예전의 호기방장한 위세를 부리기는 힘든세상이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늙은 국가보안법의 망령됨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그 준비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조금씩 조금씩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남편의 구속과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직 세상은 낙관치가 않다.

왜냐하면 ‘진짜 간첩’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천년을 한 민족으로 살아온 남과 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구보수공간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간첩’이 아니던가? 누구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려고 하는건가 말이다.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나라이며 6·15선언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한 이북을 반국가단체이며 무절려야할 적이라고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세력이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이며 미국의 이해에 봉사하는 간첩이다.

우리가족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날이 올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 세계에 내놓아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긍지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줄날도 올것이다. 그런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것이라.

지금은 6·15시대, 민경우는 간첩이 아니다 !!!

‘그들만의 민주, 그들만의 참여정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여러분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힘으로 이곳에 저는 건강하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후원회 여러분에 도움을 벌써 세번째 받고있어 무어라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할 지 부끄러운 생각 뿐입니다.

저는 전해투 택시해고자 강성철입니다.

지난 교도소 생활에서도 많은 힘이되어 주셨는데 그 보답에 감사하지도 못한채 또 이렇게 갇힌자의 몸이 되어 후원회 회원님께 누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또 이렇게 갇혀있어 동지들께 짐이되고 있는것만 같아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 뿐입니다.

바깥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고 가진자들과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수십억 수백억원을 서로 주고 받으며 그 댓가로 노동자와 학생 빈민 이땅에 양심들을 탄압하고 있으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노동자들은 추운겨울 날씨에도 차거운 땅바닥에 몸을 맡긴채 노숙투쟁을 하며 생존권을 외치고 있고 그 노동자들을 경찰은 공권력에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인 노동자는 폭력범이 되어 감옥으로 보내지는 현실.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수 많은 양심을 가두는 사회, 이것이 민주사회 참여정부. 그들만의 민주, 그들만의 참여정부.

이제는 어느누구도 믿지않는 거짓된 사회 그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 민중이 투쟁의 힘으로 거짓된 자들을 심판해야 될때인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막막하기만 한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은 투쟁이 타오르고 있기때문입니다.

그 속에 양심을 방어하고 함께 싸우고자 하는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원님들, 10년을 하루같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며 투쟁하고 계신 민가협 어머님들의 투쟁. 이런 아름다운 투쟁이 있기에 저희들은 또 힘을 얻고 새로운 가슴으로 투쟁을 준비해 갑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후원이 헛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생취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2003.12.18

영등포구치소에서
전해투 강성철 올립니다.



알립니다

회원 신년 모임

1월 24일 11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선생님들과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나누면서 신년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과 회원님들 모두에게 따뜻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에게

아빠에게

아빠 난 준홍이야

아빠가 없으니까 집이 썰렁하고 밥도 혼자먹고 심심해

요즘엔 할머니가 많이 와서 위로도 해주는대도 집이 무언가가 속빠진 것 같고 집에 와도 얼마나 할머니가 없으면 집에 있기도 싫고 또 엄마가 면회간다고 밥도 잘 못 먹어

아빠 나는 내가 아빠보다도 천배만배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없으니까 꼭 감옥 독방에 갇혀 사는 것 같기도 해.

할머니도 아빠랑 할머니 집에 자주 안가다보니 외로우신지 요즘엔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 가끔 떡도 사오시구...

아빠, 빨리 돌아와서 좋아하는 프로도 같이 보고 엄마도 면회가고, 나 봐주고, 돈벌고, 힘드니까 빨리 나와서 다른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동안 못한 것도 다하고 최대한 빨리 나와서 영화도보고 나랑 엄마 할머니도 많이 힘드니까 빨리 나와.

준홍 올림

2003년 12월 9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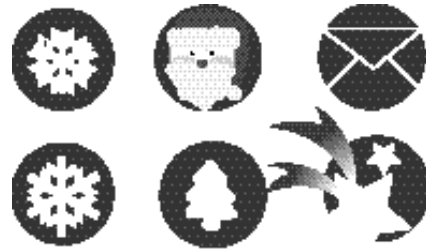
아빠에게

아빠 나 준홍이야

구치소 들어가면 또 벽두고 얘기할텐데 1년동안 모 알고 지내지?

판사님한테 잘 말해서 빨리 나오고 성탄절 선물은 다음에 줄게.

메리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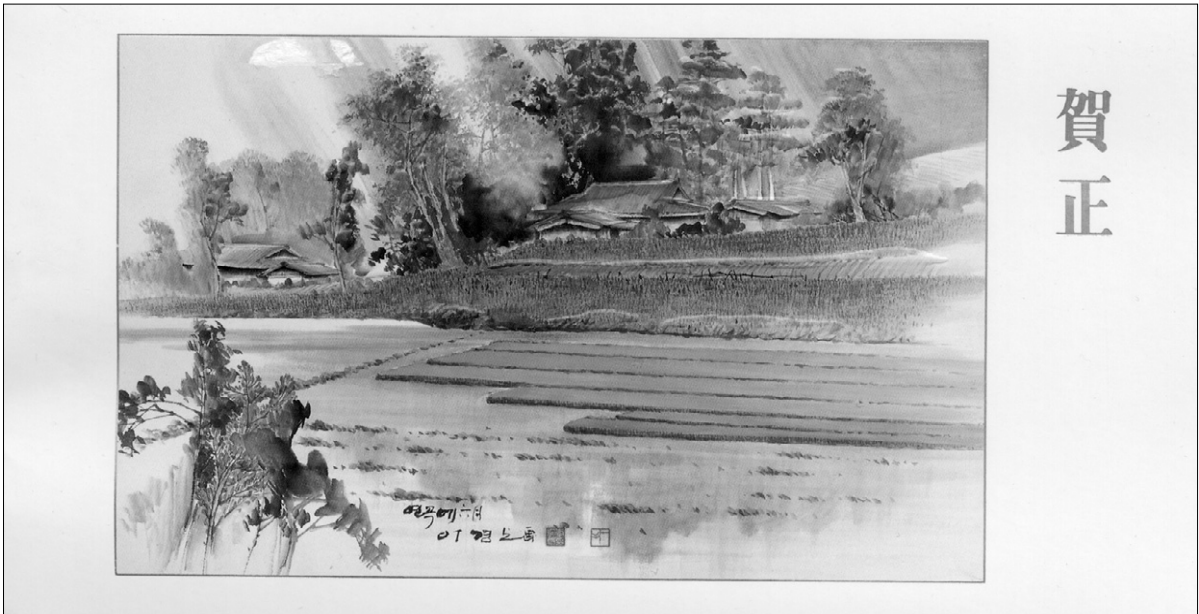


2003년 12월 18일 목요일

준홍 올림

맨 위의 편지는 지난 12월 10일 민가협500회 집회에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아들인 민준홍(11살)군이 읽은 편지입니다. 하루빨리 아빠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옥중의 그들이 보낸 신년 연하장



올 한해 연이은 죽음의 소식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노동자.농민.철거민의 항거가 민중을 깨우고 단결을 실현해갔듯이, 새해 한반도의 자주통일의 대격변기에도 우리 민족이 보란듯이 승리해 가리라 확신합니다.

선생님과 후원회의 사랑과 보살핌속에 유지해 가고 있는 몸과 맘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게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철책선이 무너지고 거레가 만세를 부를 날까지 모두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대전에서 민기채드림

청년학생들이 이 악다물고 죽지말고 살아가야할 이 유를 절실히 깨닫게 해준 한해였지요.

또 한해를 이곳에서 보내며 형님들의 피눈물을 잊지 않을 것임을. 조국과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보내 주신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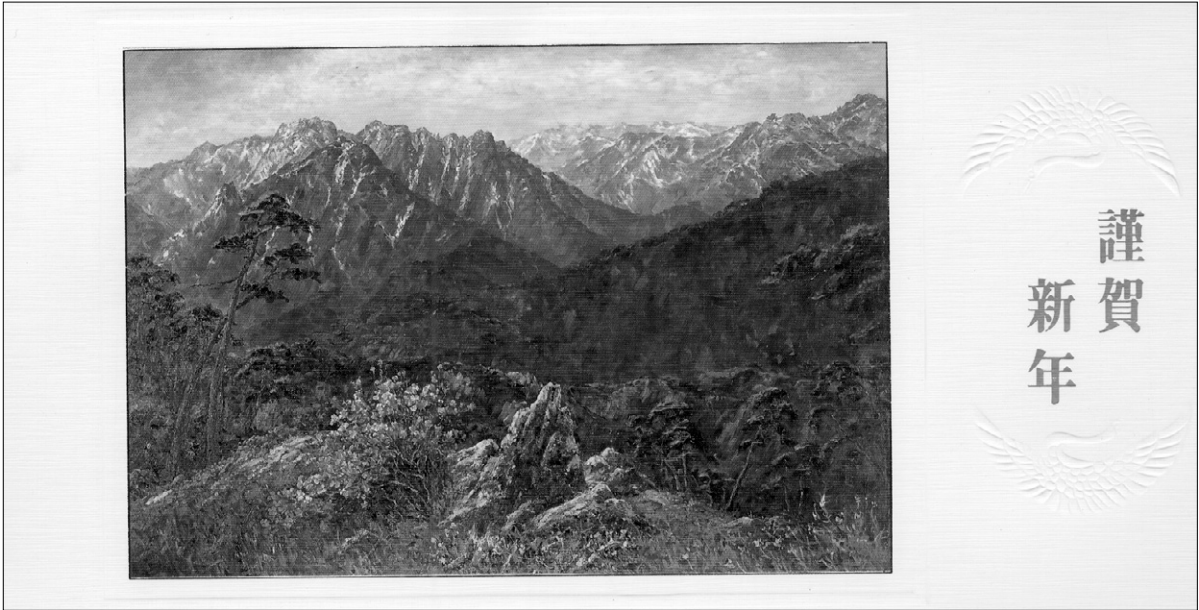
새해에도 고마우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멀리서나마 두손모아 새해인사 드립니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12.22

목표교도소에서 김형주 드림

수 많은 민중들의 죽음 앞에 안절부절. 별건 눈으로 가슴팍만 쥐어뜯었던 1년이었습니다.

보 내주신 소식 잘 받아보았습니다. 편지 내용물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내용일 거라는 추측



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얼른 이땅에 민주화로 양심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을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2004년은 승리를 안아올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으로 하루하루 보람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있고 특히 밖에 계신분들이 추운데도 열심히 활동을 해 좋은 결과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어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승리하는 날까지 같이 하겠으니 모두 건강하십시오.

대전에서 노재동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03. 12. 15

영등포에서 장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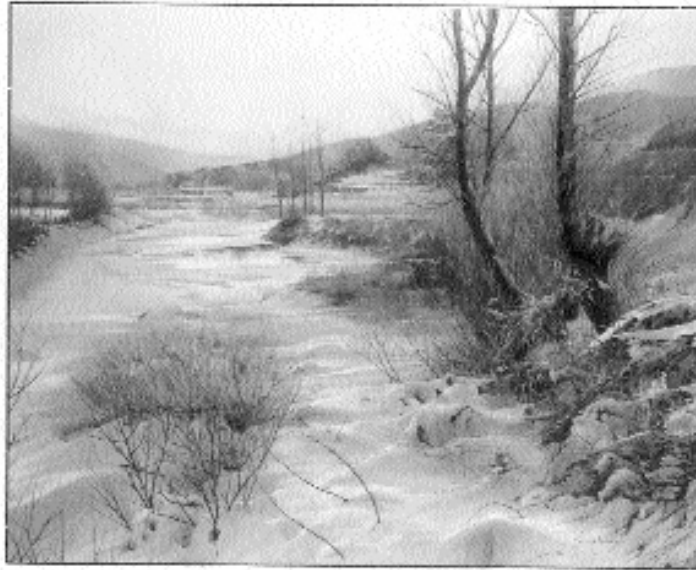
양심수 후원회 그리고 한분한분 동지들에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민중해방이... 양심수 없는 세상이 쟁취되길 간절히...

전국철거민연합 안암1구역
정중영배상

양심수들께 보내주신 후원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국가보안법철폐와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 계속

謹賀新年



선한 양심이 짓밟히는 곳이면 어디나 마다 앓고
찾아가 최선을 다해 헌신분투하시는 권오현 회
장님과 후원회동지들께 진심으로 뜨거운 격려와 감사
의 마음을 보냅니다. 항상 건투를 빕니다.

2003.12.13 청계산 자락에서
김종일 올림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소식
지와 영치금 보내 주심에 소중히 정말 잘 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저도 민가협에 무언가 도움이(?) 되
고자 할까 합니다. 민가협 모든 분들의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징역투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조직부장
천춘배 드림.

권오현선 생님을 비롯한 민가협 어머님들의 관심
과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양심수가 사라지고 사람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건설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들의 든든한 ‘뺨’입니다.

2003. 12. 8

성동구치소에서

경원대 96학번 이종남 드림

그어느해 보다 가슴을 쓸어내 려야했던 한 해였습
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하반기 투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남은 기간동
안 한해의 모든 것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노동의 새벽,



민중의 신새벽을 열어나가기길 바랍니다.

대구교도소에서
화물연대 김달식 지부장 드림

장흥교도소에서
김영재

후원회의 모든 동지님, 2004년에는 더욱 더 알찬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연 포항지부 직무대행
김영희 올림

계미년 지는 해에 어두운 기억들을 함께 보내시고
새해 갑신년을 맞이하면서 양심수후원회의 무
궁한 발전과 양심수후원회 동지들 모두에게 평화와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에서
화물연대 김달식 지부장 드림

계미년 지는 해에 어두운 기억들을 함께 보내시고
새해 갑신년을 맞이하면서 양심수후원회의 무
궁한 발전과 양심수후원회 동지들 모두에게 평화와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미 제국주의와 이라크 침략전쟁의 향방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편집자 주〉 통일과 경제, 노동자와 통일, 농민과 통일 등 통일운동에 대한 일련의 주제를 가지고 소식지에 연재를 하기로 하였던 민경우씨의 글을 옥중에서 받아 계속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호까지는 구속되기 전에 썼던 글을 싣기로 하겠습니다.

1. 90년대 미 제국주의의 전개 과정

미소가 대치하던 시절의 국제 질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미소 양 대국은 상호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조건이라면 핵 무기는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전쟁을 “억지” 하는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미소 양 대국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국제적 규모의 세력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유럽과 일본이, 소련의 경우에는 동유럽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소 양 대국은 상대방의 세력권하에 있는 나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 상호 세력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냉전 시기 소규모 국지전이 많았던 데 비해 큰 규모의 전쟁이 많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국제 역학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붕괴는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를 가져 왔다. 미국은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면서도 이미 군사화된 미국 체제의 급격한 이완을 막기 위해 “소련 악마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상이 필요했다. 소련 악마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상은 중동과 동북아시아의 “불량국가”였다. 90년대 전 기간 미국의 군사전략이 주로 이라크와 북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90년대 전 기간 미국 내부에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을 위한 모색에 착수한다. 탈냉전 이후 미국 제전략 변화의 커다란 계기는 94년 미 중간선거이다. 94년 11월에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했

다. 공화당 혁명으로 불리는 이 선거로 미국의 국내 정책은 급격히 우경화, 군사화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94년 10월의 북미제네바 합의를 굴욕적인 타협이라며 비판하는가 하면 미사일 방어망계획의 추진을 시도했다. 95년 2월 조셉 나이가 중심이 된 동북아전략보고서(EASR)에서는 미일 동맹 재강화 방침이 천명되었고 99년에는 나토의 동진 정책이 추진되었다. 미일 동맹과 나토는 냉전 시기의 산물로 미국은 탈냉전이라는 상황에서 냉전의 도구인 미일 동맹과 나토를 재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20세기말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21세기 신 질서의 향배를 둘러 싸고 각축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 행동과 외교적 교섭을 결합하는 다자주의를, 공화당 의회는 군사행동과 미국의 단독 행동을 중시하는 일방주의를 선호했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 미사일방어망계획을 통해 21세기 미국의 절대 우위를 보장하는 군사력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하였고 클린턴 행정부는 환상적이고 가공할만한 패권 구상에 제한된 수준에서 저항했다. 민주당 상대적으로 금융자본에, 공화당이 군수자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도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엘 고어와 공화당의 조지 부시 2세가 경합하였다. 11월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는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난산을 거쳐야 했다.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12월 15일 미 연방대법원이 조지 부시의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조지 부시는 전체 투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선거라는 미국 선거의 독특한 방식과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

2.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9·11

2000년 1월 20일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른바 네오콘이라는 불리는 집단들이 대거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제니 부통령, 린스펠드 국방부장관, 폴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으로 이어지는 정치 집단은 21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기 위한 위험천만한 계획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먼저 새로운 핵 전략을 추진했다. 기존의 핵무기가 미소간의 가공할만한 핵 전력 보유로 “억지와 봉쇄”용으로 인식되었다. 네오콘들은 기존의 핵 전략을 바꾸어 핵 무기를 실전 사용한 용도로 탈바꿈시켰다. 이들은 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해 미국에 위협이 될만한 러시아의 핵무기를 감축하고 전략 핵무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불량국가들을 제압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 폭탄개발을 추진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상대방의 공격은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통해 차단하려 했다.

둘째는 선제공격 전략이다. 평화와 정의의 관념이 확산된 20세기의 국제 사회에서 선제 공격은 금기의 영역이다. 실제 선제 공격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분은 상대방이 공격했으므로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한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미국이 수많은 나라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억지와 봉쇄라는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내의 네오콘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버젓히 선제공격을 명시한 전략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셋째는 일방주의이다. 미국이 전쟁을 할 의사가 있고 전쟁을 할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를 강력하게 제어할 장치가 있다면 전쟁은 억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억지와 지연의 수단이 UN 안보리 거부권이거나 미소 또는 미국과 유럽간의 정치적 역관계였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나 유럽은 물론 UN을 통한 협의조차 거부하고 미국의 단독행동 불사를 외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이라크와 북과 같은 “불량국가”의 경우 UN 안보리나 러시아 등의 중재나 외교적

논의도 무시한 채 선제 공격을 한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군사력은 지하 병커에 숨어 있는 적의 지도부를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나 북이 느꼈을 위협은 미루어 짐작할만 하다.

네오콘이 추진했던 신 전략은 9.11 이전만 해도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MD 실험은 여러 차례 실패했고 국제사회의 반발은 날이 커지고 있었고 미국 내부의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9.11 사건이다.

최근에는 9.11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보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 단정할 입장에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네오콘들이 9.11 사건을 난관에 봉착했던 자신들의 입지를 일거에 만회할 호기로 악용한 것이다.

73년 4차 중동전에서 패배하자 아랍권에서는 두가지 상반된 조류가 등장한다. 하나는 아랍 지도층의 경우 패배주의가 만연하는 가운데 친미 노선이 부상하였다. 한편 아랍민족주의와 근대화 노선을 대체하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부상하였다. 후자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79년 이란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고 미국식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80년대 세력을 확장하며 점차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주요한 대미 항전의 무기로 사용하였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가 주도한 98년 케냐 미 대사관에 대한 테러 공격은 이를 상징한다. 70년대 중반 아랍사회의 패배주의와 아랍민족주의의 좌절을 토양으로 성장한 이슬람 근본주의는 90년대 후반 무렵부터는 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해 있었다.

반면 이라크와 북은 달랐다. 이라크는 90년대 전 기간 진행된 경제 제재로 150만에서 200만에 걸친 이라크인이 희생되었고(이 중 50만이 5살 미만의 어린이다.) 국가 기간산업이 붕괴되었다. 이라크는 미국에 대한 위협 대상이기보다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힘이 부친 상태였다. 90년대 전 기간 북이 요구했던 것은 평화였다. 냉전의 붕괴와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에서 북은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을 느꼈다. 북은 줄기차게 미국에게 평화를 요구했고 2000년 10월에는 적대관계

를 청산한다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미 대통령 선거 직전 클린턴의 방북이 추진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 말 무렵 이라크와 북은 미국의 위협 대상이라기보다는 붕괴 일보 직전이거나 정치적 타협의 목전까지 와 있었다.

네오콘들은 9.11을 계기로 테러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대처에 새로운 전략 구상을 밀어 넣었다. 9.11을 계기로 형성된 공포 분위기를 활용하여 이라크와 북, 이란을 제압한다는 것이다. 2002년 12월 초 아프칸에 대한 공격이 마무리된 직후인 2002년 1월 29일 부시는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천명했다. 이른바 악의 축이 그것이다.

3. 이라크 침공

이라크와 북에 대한 새로운 공격 계획이 수립되었다. 네오콘의 구상은 이라크를 무력 점령하여 중동에서 교두보를 만든 뒤 이라크의 석유 자원을 통제하고 이란, 시리아, 사우디 정부 등을 친미화하여 중동 사회를 제압하고 나토, 발칸반도, 이라크, 중앙아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거대한 안보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에 대해서는 클린턴 시절의 모든 정치적 타협을 원점으로 돌리고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킨다는 전략이었다.

2002년 10월 부시는 미 의회로부터 무력사용 권한을 승인받고 11.8 UN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켰다. UN 안보리결의는 이라크의 무장해제와 사찰을 명시하고 있었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이 애매한 표현은 미국과 러, 프, 독과의 타협의 산물이다)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때로부터 전쟁을 둘러싼 첨예한 각축이 진행되었다. 이라크는 사소한 전쟁 명분도 주지 않기 위해 자체 미사일 조차 폐기하였고 UN 사찰단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은 새로운 사찰을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아보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상황은 예상보다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상

회하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반전 운동이 빠르게 성장했다. 진퇴양난에 직면한 부시는 영국, 스페인 등과 연합하여 UN조차 무시하고 이라크 공격에 착수했다.

3.19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4.10 바그다드 함락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호전적인 이라크는 간 데 없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변변이 없는 이라크군을 상대로 미국은 승전을 구가했다. 5.1 부시 대통령은 항공모함 에리브러햄 링컨호에서 군복을 입고 종전을 선언했고 5.22 UN 안보리는 미국의 승리를 인정했다. 전 세계는 미국 일방주의에 치를 떨었고 세계는 팩스 로마에 비견되는 신 제국의 출현을 분석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5.1 종전 선언 이후 이라크 전황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었다. 후세인 잔존 세력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게릴라식 공격은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전쟁을 지지했던 미국내의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9.8 부시는 어쩔 수 없이 870억불의 추가 전비를 의회에 요청했고 9.23에는 UN의 도움을 구걸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파병을 요청한 것도 이 즈음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전면화된 것도 이 때이다.

4. 이라크 전황과 파병 문제

이라크 전황은 미국의 통제 범위를 뛰어 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대의 딜레마는 이라크의 민심이다. 이라크 민중은 사담 후세인은 물론 미국과 외국군의 점령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요람지이자 32년 영국 제국주의를 몰아 낸 전력이 있는 이라크 민중의 강렬한 반외세 정서는 미국의 점령 정책을 뿌리로부터 부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이라크 민심에 부합하는 친미 정부를 수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군을 철수하자니 60%에 달하는 시아파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시아파는 이란 정권과 동일한 종파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후세인의 수니파 집권보다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다.

늘어나는 미군 사상자와 전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

게 된 부시가 취했던 첫 번째 타계책은 13만 수준의 미군을 4~5만으로 축소하는 대신 이를 이라크 현지 경찰과 군인의 육성, 다국적 군대의 파견으로 만회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쟁이 지속되기는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묶어 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군 사망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국적군의 파병 계획은 무산되고 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부시는 두 번째 해결책을 꺼내 들었다. 한편에서는 주권 이양 시기를 앞당겨 이라크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라크에서 발빠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쇄망치 작전으로 불리는 초강경 진압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자는 이미 실패한 계획이다. 문제는 미국의 야만적인 진압 정책과 저항의 국제화, 테러화의 양상이다. 미국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극단적인 진압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민간인 주거지를 폭격하고 게릴라 소탕을 이유로 부녀자와 어린이에 총을 들이대고 포승을 채우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민심에 역류하는 미국의 치안 유지 활동은 민간인과의 예고된 충돌과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소수의 반미향전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이라크 민중 전체를 상대로 한 전쟁으로 상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항전 또한 빠르게 국제화, 테러화하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UN 대표부,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일본, 한국의 군대 및 민간인, 터키의 유대교 사원 등 미국의 점령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으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고 그 양상 또한 차량과 폭탄을 이용한 테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충돌과 대결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현실적이고 올바른 사태 해결의 방향은 명백하다. 9.11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테러에 반대하면서도 테러의 사회경제적 지반을 해소하는 공정한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면서도 9.11을 계기로 한 반 테러 전선에 동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이라크와 북은 미국의 군사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이고 국제 질서를 미국 중심의 일국 질서로 재편

하려는 무모한 세계 제패 구상의 산물이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제 열강과 UN 등이 강하게 저항했던 이유는 미국의 일국 패권의 관철이 국제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 버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상황을 이렇게 몰아간 것은 미국의 네오콘들이다. 민주당과 클린턴, 공화당과 부시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전자 또한 경제 제재를 통한 이라크 민중의 학살을 감행했고 한반도에서 전운을 몰아 왔던 대북 강경 노선을 결행했던 강성 그룹이다. 미국내에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정치 세력은 없다. 그러나 네오콘은 총칼과 실전용 핵무기로 무장한 일방주의로 전 세계를 공포와 충돌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 정도의 연성 제국주의가 들어선다면 세계는 일단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다.

네오콘을 퇴출시키기 위한 첫 번째 계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다. 선거전의 항배는 경제와 이라크 전황이다. 부시로 하여금 이라크 전황의 책임을 지고 네오콘을 권좌에서 축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기는 2004년 미 대선에서 부시를 낙선시키는 것이다. 부시 낙선의 열쇠는 미 유권자들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힘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있다.

파병은 몰락해 가고 있는 네오콘의 이라크 점령 정책에 힘을 보태 주는 어이없는 정치적 패착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네오콘의 세계 제패 구상에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북 와해 전략에 힘을 보태는 셈이다. 문제는 이라크 전황이 위와 같은 정치적 고려의 가능성조차 뛰어 넘고 있다는 점이다. UN 대표부, 이탈리아 주둔군, 터키 유대 사원 등지로 대미 공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군 또한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현지 교민이 미국의 점령정책의 하수인으로 지목되고 희생자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 불패 신화, 친미적 가치관에 찌들은 주류 가치관은 네오콘이 만들어 낸 살육과 공포의 현장에서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한~~

한상권교수님의 역사강좌를 마치며

한수정 회원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강좌’는 지금이 2004년 1월이니 지금으로부터 3년전 2001년 12월 덕수궁답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덕수궁 답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를 직접 확인하며 이를 가슴에 새기게 해 주었는데, 이것은 이후 모두에게 ‘역사강좌’에 대한 열정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답사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가졌던 첫번째 강의에서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함께 만들어 먹었던 떡국과 김치전도 어찌그리 맛있던지...그 이후 몇번 음식을 만들어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던 경임언니와 선화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이정숙 선생님, 현익오빠, 재현언니, 재경오빠등 많은 분들이 손수 떡이며 과일 차등을 준비해 오셔서 다들 고맙게 나누어 먹었었는데 그 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에서 느끼는 사람의 향기는 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수 있었던 것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강좌 뒤의 뒷풀이도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 강의와 연관지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할 수도 있었고 강의 내용 뿐만 아

니라 이런저런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오가는 삶의 이야기들은 또다른 공부의 자리이기도 했다.

이렇게 역사강좌는 교수님과 회원들 모두의 열정을 담아 2년간의 여정을 마쳤다. 그동안 100여명의 분들이 다녀갔는데 이는 후원회를 내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더욱 탄탄히 다지고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강좌를 준비했던 한 사람으로써 이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함께 역사강좌를 준비했던 우리 ‘시사모임’의 진이, 창학오빠, 창희오빠 그리고 용준이... 모두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항상 다독거리며 잘 이끌어주신 시사모임의 ‘짱’이었던 창학오빠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를 아껴어갈 ‘후원회의 신사’ 용준이에게 내일을 기대해 본다.



한상권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열의는 정말 대단했다. 매번 새롭게 강의자료를 준비해 오시며 전해주셨던 역사강좌는 역사공부에 목말라 있던 나에게 오랜만에 시원하게 내리는 비가 되었다. 이런 강의를 들을

막상 역사강좌가 끝나니 아쉬움과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이러한 강좌가 다른 주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꽃피워 나갈 희망하며 다시한번 모두를 대신해서 교수님께 인사드린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003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송년모임

노혁 회원

2003년 12월 14일 정오. 올해도 변함없이 ‘2003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송년모임’이 광화문 새서울주물럭에서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민가협어머님들, 각계 사회단체 어르신들과 후원회원 약 130여명이 함께한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님은 이후 지방에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셨고, 범민련 김영옥선생님은 이라크 파병저지를 위한 단식투쟁 중이셨음에도 직접 참석하셔서 찬조금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선생님들이십니다. 특히, 인천 나사렛병원에서 투병 중인 정순덕선생님께서는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양심수후원회와 송년모임을 함께해주셨습니다.

1부는 이기욱 부회장님의 사회로 민중의례와 권오현 회장님의 내빈소개 및 환영사, 이어 통일광장 임방규 선생님과 민가협 임기란 어머님 그리고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님,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님과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의 송년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덕담과 회원들의 인사가 오가는 너무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이창희 회원의 사회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주이 회원의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과 이용준 회원의 ‘어머님들께 드리는 글’ 낭독이

있었고, 정순덕 선생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정순덕선생님의 소년처럼 밝으신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더랍니다. 선생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이어 前 한총련대변인 박제민 군 아버님의 기타 반주와 어머님의 노래가 이어

졌고, 많은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한번 더!’ 요청에 아버님은 대금연주로 화답해주셨습니다. 민족시인 이기형선생님의 시낭송에 이어 참석한 모든 분들이 어깨어깨를 걸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의 합창으로 송년모임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을 돌아가시는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한분 한분께 드리며, 건강하시라는 인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긴 시간 동안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권오현 회장님과 회원들은 송년모임 그 자리에서 간단한 뒷풀이를 이어가며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04년 갑신년 새해!

이 땅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서 투쟁하시고 계시는 양심수들에게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에 양심수후원회 회원들도 조그만 힘을 보태는 건강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

심주이 양심수후원회 회원

안녕하세요? 두 살배기 회원 심주이입니다. ‘두 살배기’라는 어리숙한 어감만큼이나 후원회에 대해서, 장기수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해 많이 죄송하고, 또 이렇게나마 인사드릴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며 처음 참여하는 송년회에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 무엇을 써야할지를 생각해보며, 선생님들을 처음 뵈던 때를 떠올려봤습니다.

2000년 여름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챙겨주시던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처음입니다. 그때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장기수 선생님이라는 말에 언뜻 대단하시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금은 다르게 선생님들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면 수련회에서 함께 해방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손 꼭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발 다가서서 선생님들을 뵈며 요즘은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힘겨운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아직까지도 ‘투쟁’ 중에 계시지만, 달콤하고 편안

한 솜사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가끔은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벌써 할아버지란 말이야?”라고 말씀하실 만큼 짧게 바쁘게 힘차게 투쟁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어린 제겐 “이리 가거라~저리로 가야지~”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십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 만들어가야 한다”는 모 뉴스의 글을 보면서 “참말 그래야지! 장기수선생님들처럼 일생을 바쳐서는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정의와 양심이 숨쉬기에 버거운 세상이지만, 선생님들께서 버팀목이 되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게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003년 12월14일
회원 심주이 올림

민가협 어머님께 드리는 글

이용준 양심수후원회 회원

98년 6월, 뜨거운 햇볕과 장대비가 연일 쏟아지던 여름이었습니다. 전국의 한총련 대의원들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수배해제, 아이엠에프 반대, 김영삼 사법처리를 위하여 명동성당으로 무작정 올라왔을 때 명동성당 측은 매일 나가라는 말

과 공안당국은 어떻게든 회유와 협박으로 심지어는 우리들의 부모님까지 사기와 공갈로 우리 앞에 데리고 와 양심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저와 동지들을 반가이 맞아주신 분들이 어머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얼

2004년 1월 6일 현재, 총 124명

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고마움을 넘어 그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노라면 지금도 연약하고 나태해지려는 저에게는 채찍질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들 전 거의 모든 신문에서 민가협 목요집회 500회를 사진기사로 보도하더군요. 비가 오나 눈이오나 매주 목요일 탑골공원을 지켜내신 어머님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우리시대의 양심이요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임기란 어머님께서 추운 날 관절이 너무 아파 딱 한번 목요집회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또 다시 한 해가 저무는데 양심수는 없어질 줄 모르고 노동자와 서민의 지지를 듬뿍 받으며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계속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반평화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을 연행하고 이종린 명예의장님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또다시公安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노는커녕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공안탄압 분쇄 투쟁에 어머니들이 계시기에 힘겨울지언정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 어머님들이 국회와 국방부를 상대로 열심히 투쟁해주신 덕에 안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뒤늦게 국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15일 민족해방의 날이면 복무가 끝납니다. 그 날, 장소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기분 좋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몸 건강히 행복한 시간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12월14일
회원 이웅준 올림

아래 자료는 민가협이 2004년 1월 6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4년 1월 6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1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16명, 노동자 63명, 재야 및 기타 35명, 군인 6명, 농민 5명이다.

1월 6일 현재 양심수 124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의 17.8%인 22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611명이다.

신분별 분류					
총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농민
124명	16명	63명	34명 (참가인 13·반핵대학위 12)	6명	5명

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방 등)	공무방해	폭력	화염병
22명 17.8%	56명 45.2%	28명 22.6%	42명 33.9%	43명 34.7%	2명 1.6%

기결 · 미결 분류					
구 분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 인	농 민
기결 12명	2명	7명	1명	1명	1명
미결 130명	14명	56명	33명	4명	5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방 : 공무집행방해
업방 : 업무방해

인권콘서트?

— 민가협 열다섯 번째 인권콘서트를 관람하고

모성룡 운영위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지난 2002년 열 1째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 13년에는 인권콘서트가 1회로 등극한건가?

그렇다면 포스터는 왜 새 단장을 하지 않은 건가?

나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소중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 나도 그들을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의 권리와 인 권을 존중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소외당하는 현실에 함께 분노한다.

그러나 그것을 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이라는, 이제는 고유명사 처럼 되어버린 이름을 내걸고 14년을 지속해오면서 이 땅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위해 싸우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감옥행도 마다 하지 않았던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던 그 행사를 왜?도대체 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주노동자나 동성애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것을 왜 민가협에서 해야 하느냐는 말이다. 인가협(인권운동가족협의회)도 아닌 우리 민가협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 숨쉬고 있고 송두율교수의 양심 문제가 그리고 노동자들의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어야 하는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아직은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야 하는 이 때, 민가협은 아직 민가협의 깃발을 내릴 때가 아니다. 이런 내용의 공연을 하고자 한다면 민가협의 이름을 개칭해야 할 것이고 민가협이라면 올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내용의 공연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을 가르쳐야 하고 초등학교에선 초등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민가협에서는 민가협의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울곧게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리라 생각한다.

내년에는 명실공히 열다섯 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를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알립니다

“北漢山에 오르자!”

2004년이 밝아 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 지기를 빕니다.

새 해 새 희망의 첫걸음을 북한산 산행으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 제 2004년 1월 18일 10시

모이는 곳 평창동 북악파크호텔 앞

갓출 것 회비 3,000원, 도시락, 두터운 옷



이 그림은 인터넷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편집위원이 추천 해주셨습니다.

01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제정일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공동대표의 취지인사말, 민가협 한지연간사의 2003국가보안법피해상황보고, 백승헌변호사의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민교협 박상환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전국민중연대와 삼성생명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공동으로 '삼성생명불법세습, 이견회구속처벌, 삼성생명해고자 손배·가압류철폐, 원적복직쟁취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인사말. 삼성생명해고복사례발표. 오세철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고 대검찰청에 이견회, 이재용 불법세습고발장 접수시키다.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 한국인 피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결정철회, 서회·제마부대철수를 촉구하다. 단병호 민주노동위원장의 여는말. 천영세 민주노동당부대표. 임기탄 민가협 전상임의장의 파병반대발언 정광훈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통일연대 소속회원등 민경우사무처장 불법강제연행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다. 민경우사무처장부인 김혜정씨와 이덕우변호사, 권오현대표, 김이경 자통위장,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가 면회하다.

02 옥인동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앞에서 통일연대주최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불법연행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나창순범남본의장의 여는말, 권오현대표의 규탄발언, 한상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낙성대 만남의집 김영식선생님과 김혜정간사는 화양동 김영화 목사님이 갈무리한 김장을 가져오심. 김영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후원의밤 행사 열림. 이규재후원회대표의 인사말. 민경우사무처장부인 김혜정씨의 사례발표. 권오현 한상렬통일연대 대표들의 축사. 박종화시인의 축시 '희망새' 등 문화공

연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조명희, 소수영, 변세현, 이정대, 송창학, 김혜정, 권오현 등 함께 서강대 체육회관에서 한총련과 한총련합법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주최로 '한총련 이적규정철폐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한총련문화제'를 열다. 한총련소속학생 600여명과 한총련학부모 통일광장, 양심수후원회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가극단 '미래는 한총련이야기주제의 고난의길 투쟁의길 희망의길등 노래극을 하고 노래패 '우리나라' '아줌마 노래단' 등 노래공연, '일편단심' 저자 박현서 학생의 시낭송등이 있었음. 또한 한총련 합법보장 범사회인 대책위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격려사. 정재욱 한총련의장의 결의발언 아주대 2004년 총학생회장의 아주대조작사건 사례발표 수배자가족들의 격려말과 합창이 있었음.

05 세종로정부청사앞에서 통일연대주최로 '민간통일은 동탄압 통일부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렬상임대표의 여는말. 전상봉한청의장의 규탄발언, 민사무처장 부인 김혜정씨의 사례발표. 김규철 서울시연합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연세대학생회관 푸른샘에서 한총련과 한총련대책위원회공동으로 '구시대적 공안탄압 아주대 조작사건 조작음모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우대식 한총련대변인 사회로 권오현 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의 사건조작규탄여는말, 아주대 2004년 총학생회장의 경과보고 정재욱 한총련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등이 있었음. 이어 권오현 대표와 최강복, 이낙희학부모와 아주대학 학생대표경찰청에 항의서한 접수시키다.

✚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제5차통일연대 상임대표자회의 열다. 송교수석방·대책위 활동보고, 김현희858기사건 진상규명의 보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보고, 파병반대 국민행동활동보고, 재정보고등이 있었고, 신규가입단체심의회(21세기군리인연구소) 민경우사무처장구속에 따른 대책논의 4기통일연대준비위구성문제 등 논의

✚ 혜화동에 있는 카페안토니오스에서 민족시인 이기형선생님 '봄은 왜오지 않는가' 출판기념회가 열렸음.

- 기념축가,약력소개에이어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장의 작품소개,백기완,임방규,권오현 등 축사. 이기형시인의 인사말씀이 있었음.
- 기독교연합회관대강당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창립12돌기념총력투쟁결의대회가 있었음. 소속회원과 사회단체축하손님등 4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충목집행위원장사회로 오종렬상임대표의 대회사 천영세 민주노동당부대표의 축사등이 있었음. 대회에서는 이라크파병반대총결기,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저지, 한나라당등 사대매국세력적결 등 결의
- 06 옥인동보안수사대앞에서 통일연대주최로 '통일연대 민경우사무처장 석방과 민간통일운동탄압규탄집회'를 열다. 권오현,이규재 범남본부의장의 규탄발언, 민준홍군의 '아빠 빨리나와요!'등 호소. 한충목집행위원장이 앞으로 탄압규탄에 맞서 석방투쟁등 계획발표가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임미영,변의숙,김민정,송창학,노혁,이용준 회원 함께
- 서초동 이익모 신경외과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인 류락진선생님 문병하다. 선생님은 지난4일 입원하여 5일 척추신경수술을 받으셨고 경과가 매우 좋아 10일경 퇴원하실 예정이라고 하심.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김영옥선생님과 권오현 다녀오다)
- 쌍문동 한일병원에 입원하고계신 범남본 남측본부 박정숙고문님 문병다녀오다. 선생님은 신장염증으로 열이 높아 4일 입원하셨고 지금은 열은 내렸지만 신장염증제거 치료를 다음 화요일쯤에 받으실 것으로 말씀하심.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김영옥,권오현함께)
-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 등 3개광역시와 전국70여시군에서 '민중생존권압살,이라크파병강행 노무현정권 규탄 2003년 전국민중대회가 열리다. 서울에서는 전국민중연대주최로 서울시청앞광장에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등 4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전행사에 이어 정광훈상임대표의 대회사 단병호 민주노동위원장 문경식전농부의장 김흥현 전빈련의장 천영세민주노동당부대표의 결의발언등이 있었음. 대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군 이라크파병과 미국의 파병압력반대, 손배·가압류철폐 노동탄압분쇄,

- 노점상단속 강제철폐중단. 국민연금개악중단. 빈곤계층 최저생계비 보장. 테러방지법제정과 집시법개악중단 국가보안법폐지 부안 핵폐기장 건설계획 백지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합법화쟁취 등 요구하다.
- 07 낙성대 '단남의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교수의 근.현대사강좌 제 17강 '진보당과 평화통일론' 강의가 있었음. 이날 강의를 2년넘게 이어온 현대사강좌는 종강을 하게되었음. 김현애,김혜순,모지희회원에게 개근상을 주고 회원들 한상권교수에 감사 표시
- 08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교수를 면회하다. 송교수는 기관지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출두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다. 정정희여사와 아드님. 양심수후원회에서 임미영,권오현 함께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11층배움터에서 민변주최로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열림. 토론회에서는 이라크파병결정,국가보안법현존 테러방지법추진 집시법개악시도 부안핵폐기장 일방적부지선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강행 등 반인권정책 지적하다
-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농민연대 주최로 한.칠레 FTA국회비준저지 전국농민연대결의대회가 열리다. 대회에서는 한.칠레FTA국회비준조속폐기 농가부채경감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민 삶의 질향상을 위한 복지특별법등 3대지원법 조속처리 농민대회구속 농민 즉각석방 등 촉구하다.
- 09 계승연대 오종렬,강민조,권오현등 상임공동대표와 이덕우명예회복위원장 박석률국보법특위장 박희영사무처장등 대표들은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 변정수위원장과 심의위원 등과 현안문제 간담회를 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다. 간담회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록공개문제, 국가보안법사건등 처리문제 보상심의법개정문제, 민주공원추진사업문제등 현안 논의하다.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송두율교수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음. 1부순서는 송두율교수의 학문세계 주제로 신정완교수사회, 장시기동국대교수와 성

공회대 김귀옥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2부후원의 밤행사는 김정인운영위원장사회로 함세웅신부의 여는말, 이 지상의 노래공연 신동호시인의 시낭송, 정정희여사의 감사인사말, 백기완 권오현 홍세화의 축사 김형태 변호사의 법적전망의견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송두율교수의 대학동창이며 독일유학을 함께했던 송상현,반성완 이삼엽교수등의 내가 아는 송두율교수회고담이 있었음.

10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80여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집시법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 한편 이날 국회법사위에서는 집시법개정안을 일부수정하여통과시키다.내용은 집회신고기간 48-720시간전에 하고 폭력집회때는 남은 집회금지, 외국공관, 학교등 주변집회제한 등이 포함된 개악을 하다.

종로5가 기독교회관2층 대강당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등 98개 시민 사회단체는 '최근 국가보안법적용사례에 대한 제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을 열다.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문대골 목사의 여는 말, 송두율교수석방대책위 신정완공동위원장이 사례발표.통일연대 한상렬대표의 민경우사무처장 구속사례 아주대학 김상규부총장학회장의 아주대조직사건조작음모사례발표가 있었고 주종환 민화련대표의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음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범남본남측본부이종린명예의장을 범민련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옥인동, 보안수사대로 강제연행하다. 범민련 통일연대등 사회단체성원들은 옥인동 보안수사대앞에서 긴급규탄집회를 열다. 권오현, 이규재, 노수희대표등 규탄연설, 오종렬 한상렬대표와 권정호변호사, 이종린 의장 면회하다.

민주공원추진위원회 강민조,권오현대표와 윤명선사무국장은 정부청사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조영택기획수석조정관을 면담하고 민주공원묘지조성사업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연세대 정문앞에서 한총련농성단 주최로 국가보안법 구속자석방과 한총련이적규정철폐를 촉구하는 촛불집

회를 열다. 사전문화공연에 이어 강경옥서강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권오현 한총련합법화대책위상임공동대표의 격려말. 농성단장과 강경옥학생 권명숙서울산업대총학생회장등의 결의발언과 문화공연이 있었음.

11 종로탑골공원앞에서 민가협이 주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500회 목요집회를 열다.조순덕 상임대표의 여는말. 목요집회에 대한 임기란전 상임의장의 회고와 결의발언, 양심수였던 이철우씨의 말 이일환여중생의 편지글, 함주명 출소장기수의 고문사례발표가 있었고 장기수선생님들이 민가협이며님들에 꽃묶음 전해드림. 안학섭선생님의 회고말씀. 청년양심수 전문환씨의 축하말. 민경우씨 부인과 민준홍군의 편지낭독, 송두율교수부인 정정희여사의 사례발표. 원창현씨의 김남주시 낭송 '꽃다지' 공연 등이 있었음.

범민련남측본부 회의실에서 통일연대 비상시국대표 자회의 열다. 통일연대 민경우사무처장과 범남본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적용탄압에 대한 대책기구 결성등과 파병반대투쟁등 대책논의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이라크과 병저지, 반미애국단식투쟁선포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의장단13명등 여의도 노상과 범민련사무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13명의장단은 나창순의장. 이규재부의장, 김규철서울시연합의장 이태영경인연합의장, 한기명대경연합의장, 신용관 대전충남연합의장권한대행. 서상권부산경남연합의장 임동규광주전남연합의장 도강호 민자통증앙회의 의장 설곡스님(통일불교연합의장)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 전상봉한청의장 정대옥 11기한총련의장등이다.

양심수후원회 '후원회소식146호' 최종교정 기획서에 넘기다.박정범 이승미 여혜정편집위원 등애쓰셨습니다.

12 이종린범남본 명예의장 연행조사와 관련 옥인동 보안수사대 항의방문하고 이어 남대문경찰서로 민경우사무처장면회하다(한상렬, 권오현)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반미반전 북미불가침조약체결촉구운동본부 주최로 '반미반전 평화수호 5차 금요집회'를 열다. 대회에서는 민족문화말살하는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요구 미국규탄 용산잔류부지요구중단. 주한미군철수 을사5적에 버금가는 사대매국행위 규탄등 결의를 다지다.

- 13 후원회원 변의숙.장재영님이 이성근선생님 주례와 이 용준회원사회로 양가부모님과 축하손님들 축복을 받 으면서 화축을 밝혔습니다. 한가정 이루심을 축하드 립니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반전평화공동행동(준)주 최로 '한국.중동반전평화집회'를 1000여명이 모인가 운데 열린. 정대연파병반대국민행동기획단장, 정재욱 11기한총련의장등이 파병반대결의발언이 있었고 카 이로 국제반전회의의 아슈라프.엘.바유미씨가 보내온 연대메시지를 변의숙 국제연대 대표가 낭독했으며 이 라크에 노동자로 파견되었다 목숨을 잃은 고 김만수 씨 따님 영진양이 나와 반전평화편지를 읽기도 했음.- 마치고 탑골공원까지 행진 정리집회를 진행

- 14 청와대앞 정부청사앞에서 이라크파병국민행동주최로 '국민수렴없는 청와대.4당대표밀실결정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대표의 여는말. 홍근수목사님 김기 식참여연대사무처장 노화찬민주노동당부대표, 4일째 단식농성을하고있는 범남본 나창순의장등이 파병반 대발언을 했고 고 김만수씨 따님 영진양이 영정을 들 고나와 '제발 국군아저씨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호소.마지막으로 단병호 민주노동총위원장이 기 자회견문을 낭독하다.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3년 회원송년모임이 세종문 화회관뒤 '새서울주물럭'에서 있었음. 양심수후원회 회원과 출소장기수선생님 민가협어머님 사회단체 대표 등 1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기욱부회장 사회로 1 부순서가 진행되었음. 민중의례에 이어 권오헌회장의 인사말과 오신분소개 이어 임방규통일광장공동대표.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 홍근수 평통사상임대표(양 심수후원회지도위원)의 격려말씀이 있었고 조출한 식사를 하면서 2부순서는 이창희회원 사회로 장기수 선생님들께 드리는글을 심주이회원이 민가협어머님 들께 드리는글을 이용준회원이 읽었음. 이어 인천나

사렛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신 정순덕선생님이 회 원들과 오신분들께 인사말씀이 있었고 박제민 전서총 련의장이며 한총련대변인 아버님과 어머님의 합창과 대금공연,민족시인 이기형선생님의 시낭송등이 이어 졌음. 마지막으로 모두 손에손을 잡고 '함께가자이길 을'을 합창하고 송년모임공식행사를 마쳤음. 이어같은자리에서 회원들만의 뒤편이가 있었음. 이날 함께 하신 어른들께는 양말한켄레씩 작은 선물을 드렸음.

✚ 양심수후원회 제15차년도 제8차운영위원회를 송년모 임이 끝난뒤 그 자리에서 있었음. 회계보고 활동보고 와 회비확보문제 시와 노래의 밤행사 재정지출의 균 형문제 등 협의했음.

- 15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라크파병저지 반미애국 단식5일째 하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장단 무기한 단식농성장 격려방문 정리집회에서 지지연대발언을 하다(권오헌)

- 16 광화문 교보빌딩앞에서 여중생범대위주최로 '자주평 화촛불기념비보존을 위한 각계각층1000인 탄원기자 회견'을 열다. 홍근수상임대표의 여는말. 이관복고문 의 철거통보의 부당성발언 서상권범남본 부산.경남연 합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등이 있었음. 마치고 홍근 수,진관스님등이 서울시에 오종렬,한상렬대표 등이 청와대에 탄원서 접수시킴.

✚ 서초동법원앞에서 송두율교수석방과 사상. 양심의 자 유를 위한대책위 주최로 국가보안법철폐와 송두율교 수 무죄석방촉구기자회견을 열다. 대책위 신정완교수 사회로 권오헌대표와 조영건교수의 국가보안법철폐 무죄석방촉구발언이 있었고 독일에서온 요르흐 바르 쓰목사의 독일개신교협의회가 청와대에 낸 탄원서내 용을 발표하다.

✚ 서울지법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부장판사)심리로 송두율교수국가보안법위반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리 다. 손호창, 김형태,진선미,심재환변호사등의 반대심문 에서 송두율교수는 내재적접근법에 의한 주체사상을 전파했다고 기소한 검찰에 대해 마치 철학,사회학강의 를하듯 그 심오한 사상체계를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면 서 부당성을 말하고 또한 노동당후보위원으로 임명되

있거나 알았거나 활동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남북남북 해외학자의 6차에 걸친 학술토론회도 남북사이의 화해 협력과 자주통일을 위한 학문적 활동이라고 반박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임미영, 권오현 방청하다.

❖ 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평통 사등 여러단체들 공동주최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미군기지평택이전과 비용부담반대등 51차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 이라크파병반대 반미애국단식6일째를 맞고있는 범민련의장단농성장에 격려방문하다

17 국가인권위원회 11층배움터에서 통일연대학술연구특별위원회 주최로 '6.15남북공동선언3주년을 보내며 생각하는 인권과 국가보안법철폐의 절박성'이라는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열다. 사전행사로 송두율교수부인 정정희여사와 민경우사무처장부인 김혜정씨의 사례발표가 있었고 이어 김병태교수 사회로 권오현양심수후원회장의 국가보안법의 어제와 오늘 폐지투쟁과 전망'에 대해서 인하대 황보윤식교수의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 국가보안법 이제는 철폐되어야한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장명봉(국민대) 김세균(서울대)강정구(동국대)교수와 심재환변호사 김성란 국보폐지연대 사무총장의 토론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름으로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다.

❖ 정부는 통일외교안보관련회의를 열고 '3700명 규모의 독자적인 일정지역담당 혼성부대를 추가파병하기로 결정

❖ 연세대 학생회관 푸른샘에서 2004년도 새로 뽑힌 전국대학총학생회장들이 '이라크파병결정분쇄를위한 2004년 신임전국총학생회장단선언문선포기자회견'을 열다. 총학생회장단은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12.20일 파병철폐집회, 파병안국회상정시 국회인간띠잇기와 농성, 파병찬성 의원의 낙선운동 등을 결의하기도 했음.

❖ 단식농성7일을 맞고 있는 범민련반미애국단식단가운데 이규재부의장과 한기명대경연합의장이 탈진하여 면목동녹색병원으로 이송 정밀검진을 받고있음-한편 이날

저녁에는 광화문교보빌딩앞에서 파병반대 단식농성 작은문화제가 열렸음 동서울청년회 송현석회장사회로 이라크파병국회통과저지 서총련결사대 대장 박주은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의 결의발언과 결사대의 노래와 춤이 있었고 김준기 민주노동당부대표의 연대사 해외범민련에서 보내온 메시지낭독농성단장 나창순의장과 서상권 이태영 지역연합의장등의 인사 청년학생들의 결의발언도 있었음. 단식농성을 함께하고 있는 서울연합 김규철 의장과 전국연합노수희 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서총련 서청회원 등 100여명 함께하다.

18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이라크파병국민행동주최로 '파병압력 미국규탄 파병동의안 국회통과저지 결의대회를 열다. 오종렬의장의 여는말. 정국식평화네트 워크대표의 파병저지결의발언 국내 351개단체와 일본 213개 단체가 함께하는 한일민중 공동선언을 박석률집행위원장이 낭독함

❖ 인권사회단체와 민가협이 함께하는 테러방지법제정과 집시법개악저지를위한 반민주악법저지 민가협501번째 목요일집회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다.

❖ 8일째 노상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범민련의장단 농성장 격려방문 함께하다.

❖ 장충실내체육관에서 민가협과 한겨레신문사가 함께하는 열다섯번째 '인권콘서트' 열리다. 박원순 최광기씨 사회로 4000여 관중이 모인가운데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양심적병역거부문제, 성적소수자인권 보안관찰법 피해사례등을 쫓다지 정태춘 박은옥 전인권 김중서 NEXT 이상은 등 출연하여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모든 출연자와 민가협회원 출소장기수들무대에 올라 '함께가자이길' 합창하는 것으로 마치다.

19 종로5가 기독교회관2층대강당에서 '늦봄문학환목사 10주기행사추진위원회발족식을 진행하다 박용길장로님과 문영금 문성근씨 등 유족과 각계사회단체대표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도상 통일맞이사무처장사회로 이재정 통일맞이 이사장과 신창균범남본명예의장의 인사말 이승환 기획위원의 경과보고 황인성 기획운영위원장의 10주기행사계획발표 문성근씨의

가족인사말 등이 있었음.

❖ 연희동 전두환전대통령집 부근에서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KAL858기 실종진상규명 첫 번째 금요일집회를 열다.

❖ 여의도 국회앞에서 한국전쟁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는 통합특별법완전쟁취 전국유족상경대회를 열다. 전국전국 32개 유족회와 28개 단체가 함께한 이날 상경대회에서는 통합특별법 즉각제정 진상규명위원회의 독립성보장.국방부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에 결자해지차원에서 동참할 것을 촉구하다.

❖ 범민련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에서 구속조사를 받고 있던 민경우통일연대사무처장 서울구치소로 이감(186번)

❖ 통일연대와 여중생범대위 공동으로 광화문교보빌딩 앞에서 '이라크파병저지' 이름으로 399차광화문 촛불 집회를 열다. 단식9일째인 범남본 나창순의장의 여는 말 한상렬의장과 이관복고문의 단식지지 연대발언 경기대 21대 총학생회장의 결의발언 서충련울동패 '아름다운청년' 과 문예배 '들꽃', 가극단 '미래 등의 노래극과 춤공연등이 있었음. 한편 범민련북측본부에서 연대편지를 보내와 발표하기도 했음.

20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주최로 '이라크파병철폐광화문인간띠잇기대회'가 열리다. 1부는 정보선 인권연대 집행위원장사회로 파병반대반전평화콘서트가 열림. '우리나라', '젠', '천지인', '바람', 권진원 씨 등이 출연했고 2부 한충목집행위원장이 진행한 파병철폐광화문 인간띠 잇기에는 김세균 서울대교수 정재욱한총련의장등이 파병저지 결의발언이 있었고 10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나창순범남본상임의장 이종린 명예의장등이 나와 결의인사말을 했음. 마지막으로 김숙임공동대표와 박석운집행위원장이 결의문을 함께 읽었음. 결의문에서는 노무현정부의 파병결정즉각철폐, 국회파병동의안 비준거부, 파병압력 주권유린 미국규탄, 미국의 이라크즉각철수 등을 촉구하다. 이어 인간띠잇기를 위해 정부청사쪽으로 옮겼으나 경찰차와 경찰이 겹겹으로 가로막아 이루지 못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여 정리집

회를 하고해산하다.

21 전북익산시 함열에 살고계신 김열경선생님께서 20일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만주에서 항일을 등을 하였고 해방뒤 조국땅 이북 영흥에서 군당위원장등으로 활약하셨으며 남쪽으로내려와 통일사업을 하던중 체포되 오랜 옥고를 치루시었음. 장례식은 22일 교회장으로 하였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2 12일째 노상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범민련 이라크파병저지 반미애국단식농성장에 격려지지방문하다. 여러 단체와 청년들 50여명 함께 하는 정치집회에서 이라크파병반대규탄발언하다. 소수영 변세현 이명원 권오현 함께하다.

❖ 과천정부청사앞에서 평통사 자통합 민주노동당 여중생범대위 오산대책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은 미군 병사 '제리 온켄' 병장의 음주운전과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사건과 관련 '법무부는 오산음주운전 뺑소니사망사건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와 즉각구속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23 '아름다운재단'에서 1년동안 기부받은 물품들을 판매한 수익금 가운데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행사가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에서 있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가 도움을 요청한 정순덕선생님간병비 이름으로 2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초동 법원 앞에서 송두율교수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송두율교수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기자회견'을 열다. 대책위 신정완 운영위원장 사회로 권오현대표의 여는 취지말. 김세균대표의 유르겐 하버마스교수가 송교수담당재판부에 보낸 탄원서를 읽고해설했음.

❖ 서울지방법원 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부장판사)심리로 송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심문이 있었음. 검찰은 내재적접근법등 학문방법에 대해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이북에 대해서는 왜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는등 구체적 혐의사실이 아니라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이북에 대한 비방이나 억지자백을 강요하는)내용의 심문으로 일관하여 송교수는 거부권

행사로 대응. 마지막으로 박연철변호사가 다시 반대 심문에서 송교수측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라도 이북의 인권과 민주주의발전에 대해서 운동을 한사람이 있느냐'

23 서초동 법원앞에서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송두율교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기 기자회견'을 열다.대책위 신정완 운영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대표의 여는취지말, 김세균 대표의 유르겐 하버마스 교수가 송교수 담당재판부에 보낸 탄원서를 읽고 해설했음.

☞ 서울지방법원 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송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심문이 있었음. 검찰은 내재적집근법 등 학문방법에 대해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이북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 혐의사실이 아니라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북에 대한 비방이나 억지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의 심문으로 일관하여 송교수는 거부권 행사로 대응. 마지막으로 박연철 변호사가 다시 반대 심문에서 '송교수는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라도 이북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운동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 뼈 있는 심문을 하다.마치고 법원구내에서 대책위 관계자와 방청인들 방청소감 등 정리모임을 갖다. 리영희 교수와 권오현 대표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냉전시대의 잣대'라고 비판.

☞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가결하다.

☞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근처 옛 정부청사 앞에서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파병안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회견에서는 '국민을 무시한채 오직 미국국방부와 합참하고만 협의하여 파병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그 댓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다.

☞ 1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범민련 의장단 농성장을 격려방문한 많은 사회단체 성원들이 파병안 결정에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 김수철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회장, 이정미 민주노동당 SOFA개정운동본부장, 유지춘 외대총학생회장, 이태호 참여연대정책실장 등이

규탄연설이 있었음.

24 여의도 국회본관 앞에서 27개 인권단체 30여 활동가들이 이라크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국회비준안 등 4대 인권관련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하다. 플랭카드와 피켓시위를 하던 이들은 경찰에 의해 6개 경찰서로 불법장제 연행되다.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이라크파병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한총련 결사대 농성단 주최로 '이라크파병안 국무회의의 통과규탄 및 국회통과 결사저지를 위한 한총련 농성단 기자회견'을 열다. 농성단은 '내부모형제의 피', '불법자금똥물'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노란색 물감을 국회모형물에 뿌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가면에 케첩과 물감을 뿌리는 퍼포먼스도 있었음.

☞ 이라크파병 저지를 위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 반미애국 단식농성에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대표 하루단식 농성에 합류하다. 1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나창순 의장과 김영옥 중앙위원을 비롯하여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이 4일째 농성을 하고 있으며 임방규 선생님 등 통일광장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하셨고, 서울대생, 상명여대생 등 청년학생들과 이천재, 김영도 등 서울연합 대표도 함께했음. 이날 낮에는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이 격려방문하고 올해말까지는 파병동의안을 국방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할. 오후4시 정리집회에서는 권오현,임방규,김영도,노수희 대표들의 파병반대 발언과 한국외국어대, 상명대, 경희대, 서울대 등 총학생회장 또는 학생대표가 그리고 한총련 농성단 대표의 결의발언 등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소수영, 이정태, 권오현 함께하다.

25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기독연대 등 40여 교회단체와 200여 회원이 모인가운데 성탄절 연합예배를 갖고 이라크 파병반대와 생존권 위협을 받고있는 이국노동자,철거민,노동자,농민 등의 고통을 나누자고 호소하다.

☞ 범민련의장단 이라크 파병반대 노상단식농성 15일째 격려방문하다. 이날도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청년학생 70여명이 정치집회에 합

- 깨하다.
- 26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와 군사상자유가족연대 공동의 '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 촉구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다. 추모연대 김학철씨 사회로 허영춘 의문사 가족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고, 오종렬, 강민조, 권오현 등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의 법개정촉구 발언등이 있었음.
- 여의도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우리당의 파병안 찬성 당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홍근수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권오현, 서정길, 주종환대표의 규탄발언, 오종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의 집시법 등 위반혐의 증인신문 공판이 열린다.
- 경기도 안산시 가얏고 한식부페에서 안산지역 통일인사 후원의 밤 준비위원회(공동의장 김의정목사의) 주최로 표문태(원로작가), 김병권(범민련남측본부고문), 박기래(안산통일학교교장), 석달윤(서예가) 선생 등 통일운동 인사들에 대한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음. 네분 에 대한 약력소개와 인사말씀.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김영환 안산국회의원, 안산시장, 김준기 전신구전문대교수 등의 축사가 있었음. 후원의 밤에는 안산지역 사회운동 활동가 등 50여명이 함께 했음.
- 미육군 K6 기지가 있는 평택군 팽성읍 황새울 영농단지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을 대책위 주최로 '미군기지 확장으로부터 우리땅 지켜내기 위한 팽성사람들 천막농성 발대식'이 열림.
- 광주육군 31사단 보충군법회의에서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귀대않고 농성을 하다 연행된 강철민 이병에게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 실행2년을 선고하다.
- 16일째 파병반대·반미애국 단식농성을 하던 나창순 범남본의장 의식있고 녹색원원 3105호실에 입원하다.
- 27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과 부군 박희봉선생님 결혼 50돌을 맞아 자손들이 교회성원들과 민가협, 유가협 회원을 초청. 테헤란로 포스코빌딩 식당에서 점심대

- 접을 했습니다. 결혼 50돌을 축하드리고 만수무강하기실 밍니다.
- 여의도 범민련 파병반대 농성장에서 범남본, 전국연합, 실천연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공동으로 '부정부패원조당 한나라당 해체 결의대회'를 열다.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사회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대회사,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한나라당 해체 정치발언, 안서영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장의 결의문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박아무개씨 유족이 국가와 수원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교도소에서 박씨의 몸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적절한 치료를 하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
- 여의도 국회앞에서 전국민중연대 등 주최로 '반인권 반민주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원로대표 100인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상임의장의 여는말, 박래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연구원의 경과보고, 이명순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이사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 등의 규탄발언, 참여연대 박상중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등이 있었음.
- 같은 자리에서 오후1시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제민중·시민·인권 사회단체 결의대회가 열린다. 홍근수 대표의 대회사, 오종렬, 권오현 대표의 개악반대연설, 조순덕 민가협상임의장의 결의문 낭독, 서울대 범대생들의 법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있었음.
- 여의도 국회앞에서 전국농민연대 주최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동의안 비준반대 전국농민대회'가 전국에서 3000여 농민이 모인가운데 열림. 카톨릭농민회 정기환 사무총장 사회로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상임대표의 연대사,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한농연 서정의 회장, 전농 정현찬 의장 등의 정치발언이 있었음.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져온 벼10가마를 태우는 퍼포먼스가 있자 경찰이 폭력저지에 나서 농민들과 몸싸움. 방패폭행이 심했음. 이날 농민 11명이 크게 다쳤고

36명이 강제연행 당했음.- 한편 아날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FTA비준동의안은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하지 못했음.

❖ 파병반대 노숙단식농성 19일째를 맞고있는 범민련 의장단 농성단은 여의도 농성장에서 농민들과 사회단체, 청년학생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이라크 파병저지 반미애국 문화제’를 열다. 이종린 명예의장의 여는말에 이어 노래패 ‘희망새’, ‘우리나라’, 가극단 ‘미래’, 풍물패 ‘사람세상’ 등 출연하다.

30 서초동 법원앞에서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송두율교수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신정완 교수 사회로 권오현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냉정자대 규탄발언, 정정희 여사의 독일다녀온 보고말씀 등이 있었음.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증인신문을 하다. 먼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내재적접근법이 주체사상 선전 수단이라며 검찰주장에 맞장구를 쳤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맹목적 반복 반공의 허위성을 들어내다. 변호인 증인으로 나온 이삼열 교수와 양정옥 박사는 독일에서 송교수의 학문활동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의 헌신성을 증언하다.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민주당의 박주선, 이훈평,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의원등 대선자금 등 비리연루 국회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다. 국회의원만의 국회로 전락하다.

❖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2004년 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 39명은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촉구 전국대학 신입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을 열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중단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을 막고, 거래의 통일의지를 무시하며, 6·15 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규탄하다. 이들은 12.31~1.1일까지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 및 해맞이 행사를 위해 금강산으로 떠나다.

31 20일동안 이라크 파병반대 반미애국단식 농성을 했던 범민련 김영옥 중앙위원이 탈진해 30일 녹색병원에 입원하였기에 격려문병을 다녀오다(남정현, 황건, 권

오현)

❖ 광화문 교보빌딩 앞 종로길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파병결정 노무현정부 규탄,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저지, 미국의 이라크점령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송년결의대회’가 열리다. 4000여 시민사회단체와 청년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홍근수 대표의 여는말, 최선희 평화를여는여성회 사무처장, 이필두 전 빈런 공동의장, 장수경 반미여성회 사무처장의 파병반대 결의발언이 있었고,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대표의 ‘돌아올 수 없는강은 건너지 말라’의 시낭송, 주종환 민화련 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2부 순서는 노래패 우리나라, 꽃다지, 천지인 등의 공연과 김준기 교수의 신년메세지, 이규재 범남분 부의장의 결의발언, 양기환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자유발언, 이관복 대표의 송년시낭독 등이 있었음.

❖ 양심수 30명에 새해 연하장 발송하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로 써달라며 5,0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달 간병비 11월분 차입분을 갚고 12월분 간병비를 제외한 2,000,000원은 정순덕선생님 간병비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배규선 교수님께서 양심수를 위해 써달라며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경화 님, 이어지는 큰 성금에 감사드립니다.